



## 강 남 구



수신 서울특별시(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위례신사선 경전철사업 조속한 추진 요청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역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와 현대차그룹부지(舊 한전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역 일대는 지난 2014년 「MICE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연간1,000만명 이상의 요우커 등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토부도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굴착공사기간 최소화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래 삼성역을 경유할 5개 철도노선과 1개 지하도로 계획을 통합하여 개발하기 위한 “영동대로 통합개발 협의체 구성(과장급에서 국장급 확대)”을 발표(2015.11.25.)한 바도 있으나, 위례신사선은 계획 초기 **2017년 완료**에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이 확정발표(2014.5.)되면서 **2021년 완료**로 늦춰졌습니다.

4. 위례신도시는 2013.12월부터 단계별 입주가 진행되어 2년이 지난 현재 신도사에서 출퇴근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한 상태이고, 그 여파로 우리구 세곡동에도 몰려드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이며, 향후 위례신도시 입주가 더 진행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위례광역 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건설이 2021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사선이 2021년까지 완료되면 위례신도시 주민의 강남접근성이 높아져 강남통과차량도 줄어 들 것이고, 삼성~동탄 GTX-A노선 개통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도 완료되어 MICE관광특구와 교통이 편한 강남의 시너지효과를 서울동남권 일대 주민이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

## 강 남 구 청 장

주무관 **김선웅** 신교통추진팀장 **이성노** 교통정책과장 **신동명** 안전교통국장 **03/07 박은섭**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629 ( ) 접수 ( )  
우 06090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http://www.gangnam.go.kr)  
전화 02-3423-6392 /전송 02-3423-8848 / [bono7699@gangnam.go.kr](mailto:bono7699@gangnam.go.kr) / 대시민공개